

우(牛)라차차, 신축년에 듣는 우리 소 이야기 - 한우

‘수입 쇠고기보다 음식 재료 다양’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를 맞아 우리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리가 평소 궁금해 했던 한우 이야기를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일두백미(一頭百味),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날까?
예부터 우리나라는 한우 부위를 세밀하게 나눠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해 왔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영국, 프랑스는 소를 35부위로 나눠 먹는데, 한국은 120부위로 즐겨 먹는다”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현재 쇠고기는 등심, 채끝, 안심, 갈비 등 대부분 10개 부위와 제비추리, 부채살, 설깃살 등 소분할 30개 부위로 나누고 있다. 쇠고기 부산물은 머리, 사골, 소꼬리, 우족, 위(양, 발집위, 천엽, 막창), 장(곱창, 대창), 혈액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온 한우 부위는 스테이크, 구이, 탕, 전골, 볶음, 조림, 육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고 있다.

▲한우고기가 수입 쇠고기보다 맛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단맛·감칠맛 내는 성분도 수입산보다 많아 한우개량사업으로 1등급 이상 출현율 증가 사육가구당 약 34마리 키워 산업 규모화 뚜렷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지방산 성분과 함량이 다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방산인 올레인산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가 약 49~52% 수준으로 수입산(39~42%)보다 높았다.

또한, 쇠고기 맛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 한우고기가 수입 쇠고기보다 단맛(글루코스)과 감칠맛(구아노신일인산염, 이노신일인산염)을 내는 성분이 많았고, 신맛(락테이트)과 쓴맛(하이포크산틴)을 내는 성분은 적었다.

▲한우개량사업 50년, 한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한우개량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했다. 1974년 한우 출하체중은 358kg이었으나, 개량과 가축 사양기술의 발달로 2019년에는 694kg으로 체중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

했다. 또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소도체 등급관점 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 10.7%에서 2019년 88.8%로 증가해 육질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소 팔아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 1978년 한우 1마리 가격은 약 58만 원이었으며, 국립대학교 연간 등록금은 5만원에서 11만 4,000원 정도로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한 명의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소 값으로 1년 대학 등록금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670만 원이며, 한우 산지가격은 2020년 11월 수소(거세우) 기준 약 542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집에서 1마리 키우던 소, 지금은 몇 마리를 키울까?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우 사육 가구의 평균 마릿수는 2마리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한우 마릿수는 307만 8,000마리, 가구 수는 9만 4,000가구로 가구당 약 34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의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한우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70년 1.2kg, 1980년 2.6kg 정도였지만, 2010년 8.8kg, 2019년 13.0kg으로 크게 늘었다. 한우 소비량은 2010년 약 3.1kg, 2019년 4.1kg으로 늘고 있지만 한우 지급률은 2010년 36.5%에서 2019년 32%로 낮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병영 원장은 “한우는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키워온 자랑스러운 우리 품종이다. 소띠 해를 맞아 한우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고 한우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2021년 신년사

“농업·농촌의 미래 대응 원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는 농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농산업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추변화라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과수화상병 같은 동식물 질병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해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의 개발과정에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혁신적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K-농업기술의 전파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농촌진흥공직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극세척도(克世極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농업과학기술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농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합시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활력 회복 앞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전북경제 발전과 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지역상공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나도 긴박했던 365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의 바람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멀게만 느껴졌던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며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제활력의 가장 큰 주체인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어렵다고 움츠리고만 있기보다는 우리 앞에 닥친 변화의 바람에 정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는 물론이고, 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

해야 합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급변하는 경제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업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상공인 여러분도 도민 모두와 함께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 나은 한해를 창출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출발점에서 우리 상공인들과 전북발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깨끗한 축산농장’ 고창한우 판매 개시

롯데백화점 관악·안산점서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국립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제도에 발맞춰 고창한우 생산농가중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한우를 선택, 롯데백화점 관악점과 안산점에서 판매를 개시하게 됐다.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부안축협은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협력하여 현재 다수의 인증농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청정지역 이미지에 맞게 모든 농가들에게 적용시킬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안산점서 고창한우 판매 개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관리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은 가족사료를 TMR에서 TMF로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을 개축하고 생산설비 일체를 업그레이드했다.

조사료(풀)사업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사료급여, 왕겨사업을 통한 위생적인 축사관리, 미생물사업을 통한 약취 제거로 동물복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농가들이 정성들여 키운 고창한우를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 취약계층 위한

‘안전 더하기 안심’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지역 자치단체와 손잡고 생활이 어려운 홀몸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생활 속 전기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전기기·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경제적 지원 취약가정에 캠페인 협력 기업의 위생용품(물티슈)을 구매해 지원해왔다.

지역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돌봄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저소득 임산부가정인 그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전북 완주군에 건강유우 약 2800개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왔다. 후원 제품에는 전기안전 실천요령이 담겨 있다. 이 또한 공사와 안전 캠페인을 함께 펼치는 협력기업 제품들이다.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자체 제작한 콘센트 안전마개도 무료로 보급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장관상 수상 상금 전액을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완주군으로부터 기관 단체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완주군보건소가 주는 감사패를 받은 이유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사랑 한가득

간식상자’ 전달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9일 전주시 금안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사랑 한가득 간식상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랑 한가득 간식상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시대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영양 간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나눔을 통해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간식상자는 두유, 누룽지, 잔치국수, 사과곰탕, 쌀과자, 약과, 카스타드, 사탕 등 총 8종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에 노인복지관 7곳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2020년 우수중소기업인 및 지원기관 유공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기 경영 애로 해소 기여

전북지역 우수중기인 8명·지원기관 5곳 중기부 장관상 수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30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2020년 우수중소기업인 및 지원기관 유공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존경받는 기업인, 우수중소기업인, 업무유공, 지원기관 유공 등 4개 분야로 기업대표 8명과 지원기관 5곳 등 총 13점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확대,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지원기관들이 다수 수상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

이다. 존경받는 기업인 부문에 수상한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이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중소기업인 부문에는 농협회사법인(주) 서동출산 고대현 대표, (주)코아스 이도훈 대표, (주)메디앤리서치 이서형 대표, (주)강동오케이 강동오 대표, 익산서동시장상인회 서길봉 상인회장, 김제전통시장상인회 오인중 회장, 예단인테리어디자인 장미정 대표가 경영혁신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윤상 기자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김용실 전북지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생명역량센터장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지원기관 유공부문은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운영용 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윤희구 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임미래 주임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을 혁신적으로 경영하고 중소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국민 체감도 높은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서

공단-은행간 압류방지용 전용계좌 실시간 정보연계시스템 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8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 해 다양한 성과사례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 위한 비대면 회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공단이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국민편익을 높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공단-은행간 압류방지용 전용계좌 실시간 정보연계시스템(연 5만 명 혜택) ▲새로운 신용평가모형 개발 ▲‘국민연금 증명서’ 정부24 전자지갑 발급(공공기관 최초) ▲신장 장애 자동심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서류 제출 불편 해소 등이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인 사례이며,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도입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NPS 반계출장세차’ ▲임직원 후원금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동반성장 확산(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촉진(대통령상)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장애인 인권 향상(대통령상) 등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다. /김윤상 기자